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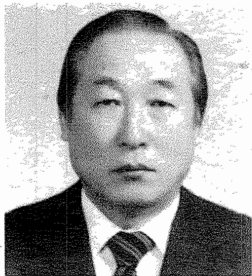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 丙 疇
主 幹：李 丙 泰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시 중구 무교동 33-1
印 刷 處：신오성기획인쇄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40-1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누락되는 종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 당부

우봉이씨 세보 편찬위원회 발족
- 위원장에 병철 대중회 부회장 취임 -



병철 위원장

대중회는 지난 해 1998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우봉 이씨 세보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종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0일 발족하였다.

그 동안 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3월 16일 세보편찬을 위한 회칙 제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중회가 마련한 회칙 초안을 상정하였으나 다시 永範(영범) 부회장 중심으로 회칙을 심의하도록 결의하였다.

그후 회칙이 제정되어 5월 14일 회칙을 의결하고 세보편찬 위원장에 丙七(병칠) 대중회 부위원장을, 제1분과 위원장에 丙吉(병길) 대중회 부회장을, 제2분과 위

원장엔 萬寧(만녕) 대중회 부회장) 일가를 그리고 편찬위원으로 丙泰, 丙天, 丙國, 丙秀, 寅寧, 守寧, 健寧, 甲寧, 德寧, 喆衡, 茂學, 茂卓, 用茂, 寅茂, 茂錫, 龍茂, 範泰 일가 등 17명을 위촉하였다.

이날 위원장에 선임된 병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빠짐없이 전 일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전 일가에게 수단 작성 시

에는 세보 기재사항 중 누락된 일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수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보 편찬 찬조금 모금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찬업무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세보편찬위원회 발족 기념사진

▶ 용인 신산선조묘역에서 별초작업을 실시했다

각 문중마다 자손들 모여 별초

감찰공 문중, 김포 강화 문중을 시작으로
감찰공묘와 귀락당공, 도암공 묘역 등 별초

해마다 김포 문중(회장: 丙濬)에서는 모든 일가가 쉬는 8·15 광복 기념일을 택하여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석원동에 있는 조상묘의 별초를 실시해 왔는데 올해도 지난 8월 15일 뜨거운 폭염 아래서도 70여 명의 일가들이 참석하여 별초작업을 시작으로 8월 29일에는 감찰공 묘소 별초작업을 실시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고양군 신도면 향동 2리에 있는 감찰공(折) 묘소와 訪(할·좌찬성), 之信(지신 관찰사) 묘소를 별초했다. 이날

별초에 참석한 감찰공 문중(회장: 丙吉) 자손은 다음과 같다. 丙泰(부회장)을 비롯하여 丙天(총무), 俊寧, 世寧, 有寧, 敏寧, 康寧, 濟寧

한편 용인의 귀락당공을 비롯한 만회당, 일휴정, 도암공 묘소도 별초작업을 실시했다.

용인에는 이병주 회장을 비롯한 도유사(무학), 건녕(종무위원), 병호(종무위원), 병순(감사), 종무(도암공 종손) 등 26명이 참석하여 자손으로서 뜻있는 하루를 보냈다.

●세보편찬 제작비 찬조하신 일가●

- 萬寧 부회장 2,000만원
- 丙德 부회장 500만원
- 丙七 부회장 100만원
- 秉茂 부회장 100만원
- 舜寧 부회장 100만원
- 淸寧 부회장 100만원
- 勳九 종무위원 100만원
- 丙國 종무위원 60만원
- 根寧 종무위원 60만원
- 基茂 종무위원 60만원
- 範泰 종무위원 60만원
- 丙龍 종무위원 30만원



만녕 부회장



병덕 부회장

* 세보편찬 제작비 찬조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 찬조금을 내신 일가에게는 새로운 세보 발간 즉시 1절을 기증
- 찬조금을 내신 일가에게는 새로 발간되는 세보에 3대(조·부·본인) 기명
- 찬조 금액은 20만원 이상 일가

세보편찬 위원회 GIRO 7653049호로 승인

지난 6월 24일 지로번호 및 특수장표(신규)를 신청했던 지로번호와 계좌번호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7월 3일부로 064482호로 승인되어 통보를 받았다. 승인된 지로번호는 7653049이며 계좌번호는 102-07-178507호 이다.

기획실무팀 구성 운영

기본계획, 기초조사 등 실무에 착수

세보편찬위원회는 7월 2일 대중회 사무실에서 병철 위원장 주재 아래 기획실무팀을 구성을 하고 1분과위(편집, 교정, 고증, 검토, 계대확인 및 누락, 보완 등) 업무는 丙泰, 守寧, 德

寧, 2분과위(수단수집 예산 및 회계업무 지원 등) 업무는 喆衡, 寅寧, 用茂 씨가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茂學 도유사는 편찬업무를 총괄지원한다.

게·시·판

동정 ▲勳九(훈구) 종무위원 용인충담대학 교수 대중회 총회 참석차 인사 ▲範周(범주) 대구 문중 유사 신명전기합자회사 사장 ▲丙吉(병길) 부회장 '98.11.22 고회기념행사개최, 서울 힐튼 호텔 ▲昌茂(창무) 청장년회장) 대중회 신년하례회 주관 1.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번지 아세아 시멘트 빌딩에서 종무위원 지역위원 및 청장년회원 참석 ▲청장년회(회장:창무) 춘계 선조유적지 순례행사 주관, 서봉묘소, 학천정, 영락정 등지 순례 ▲丙濬(병준) 김포 강화 문중회장) '98 대중회 총회에서 위선사업부문(덕은공원 등 비석건립) 공로로 회장 표창 수상 ▲熙九(희구) 건설업) 自強公 묘소 조경사업과 文穆祠(도문화재) 및 四觀亭 보수 추진 공로로 회장 표창 수상 ▲종무위원회 개최 1차 회의('98.11.7) 총회 결과보고, 부회장 추가임명(병덕, 청녕) 결의, 세보발간추진안 토의, 2차회의(3.16) 세보편찬위 회칙심의, 세보 열람대 설치 활용안내, 청장년회 문경순례 행사 협찬, 기타사항 토의, 3차 회의(5.14) 세보편찬위 회칙 의결, 위

원장 선임, 신임종무위원 소개(학구, 범태위원) ▲세보편찬위원회 개최(6.10) 기획실무팀 구성, 세보편찬 홍보강화, 찬조금 모금운동전개, 운영자금 집행관계 ▲忠範(변호사 한나라당 을성지구당 위원장) 후원회(회장:송상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6.23) 丙德, 萬寧 부회장, 根衡 및 茂學 도유사 참석 ▲守寧(서예가) 세보계대 제작 대중회에 기증 ▲감찰공 문중(회장: 丙吉) 감찰공묘 별초(8.29), 용인 감찰공 문중 별초(8.29), 김포 강화 문중(회장: 丙濬)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통덕량(胤)공 및 참판공(圭) 문중 별초

결혼 ▲茂卓(무탁) 종무위원) 막내딸(지은 양) 신랑 성진근(이배근 씨)과 궁원예식장에서 결혼식('98.11.29) ▲德寧(덕녕) 종무위원) 따님 결혼식(6.26) 제일은행 본점 강당 ▲淸寧(부회장) 따님(禧承)양, 신랑 炳冠 君 결혼식(10.23) 궁공회관 **부음** ▲鎬根(전 두마면장 94세) 8월19일 별세 8월21일 발인 장지 논산 노성면 하도리 선영 슬하에 4남3녀

우봉 이씨 세보는 고려 명종 때부터 문중별로 세계(世系)는 가승(家乘 필체)을 기록하여 조상의 업적을 이해하고 제사 등 문중행사에 활용하다가 1927년에 전 10권으로(발행인 李允用 大同印刷) 편찬하여 500부 한정판으로 최초로 인쇄 발행하였다. 그후 50년 만인 1975년에 2권(乾坤 발행인 李丙燾 敬信印刷社)을 2차로 다시 500부 한정판(추후 3판까지 발행 총 1,500부)으로 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보는 한 세대인 30년을 기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화된 관례로서 우리 문중도 2005년이면 30년이 되어 세보편찬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문중마다 족보 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체제도 다양화되어 비디오 테이프도 음악효과까지 넣은 영상으로 편찬하는 가하면, 컴퓨터 인쇄술도 다양한 편집으로 CD제작 등 족보의 보존가치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간하고 있는 세보에 대하여 우리 세보의 편찬을 앞두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내용 및 편찬의 적극적인 홍보이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1987. 12. 23 경향신문 참조) 전국 본관별 가구와 인구에서 우봉 이씨는 4,278 가구로 17,513 명이 있었다. 인구 분포별로 보면 경기도 김포시(강화군 포함) 월곶면 개곡리를 포함

하여 18곳이나 있으나 자손들이 대부분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집안 소식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월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고속도로가 메일정도로 누구나 조상과 부모를 찾아 고향으로 간다.

따라서 문중 30년만의 세보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대(系代)를 정확히 찾아 탈락되는 중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단의 수집과 예산확보이다.

지난 7월 1일 만녕 부회장((주)光一 대표이사)은 세보발간을 위한 기금으로 2천만원을 그리고 병덕 부

하고 싶다. 셋째 편찬업무는 중론을 선택하여 최선의 편집이 되어야 한다.

누락된 계대(系代) 및 오자(誤字) 등 수정을 요하는 일가를 찾아 협조하고 그 외에도 계속 발굴, 심층분석하여 최대한으로 등재해야 한다. 체제(體制 碑文掲載 國漢文 사용문제 등)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중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끝에 결정하고 인쇄업체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 후 공개입찰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흔히 한자를 써서 족보임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이 한자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명백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편찬하는 세보에 대하여서도 역사의식과 전통문화의 보존차원에서 조상들의 생활과 학문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을 그대로 살려 집안의 품위를 지키고 그동안 대종회에서 국역한 우봉 이씨 문중요람을 참고한다면 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해소되리라 본다.

이상 세보편찬에 있어 주력할 점에 대하여 몇 마디 언급하였다. 이번에 편찬할 세보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첫 사업으로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에 게 전통가문의 긍지를 심

어주고 사라져 가고 있는 선조들의 행장(行狀)을 거울삼아 스스로 자신들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데 중요성이 있으며 일가간의 교류 및 화목과 상부상조는 물론, 본묘(墳墓)수호와 유적(遺蹟)보존 및 위선(爲先)사업 등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글세대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편찬해야 한다는 조건도 무시 못할 검토대상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편찬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한 후 편찬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번 편찬사업으로 전통가문의 자존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고 다른 문중의 귀감(鑑鑒)이 되는 세보가 되도록 다 같이 협력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병태주)

99년 대종회 총회 준비 회의 개최

모범 청소년 표창부문 신설

대종회는 지난 10월 11일 4/4분기 중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종회 총회준비계획을 비롯한 당면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사무실 유지비용 부담금 특별회계와 세보편찬 찬조금 회계의 통합안을 비롯한 총회 개최장소 계약, 총회진행 계획의 심의와 전 종재 가족에 대한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및 기타 당면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중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 만용, 훈구, 병주, 병철, 병길, 병덕, 병태, 병국, 병수, 인녕, 우녕, 철녕, 순녕, 근녕, 무학, 무석, 용무, 범태, 범서

대종회 소유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취소판결 선고 결정

지난 5월 21일, 대종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8.6km²(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의 46)에 대한 초과 부담금인 4천3백22만3,270원을 동대문구청(구청장: 유종덕)으로부터 납세통보를 받고 그 동안 대종회는 소송원고 대리인으로 永範(대종회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부과금 처분청구를 추진한 바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과금 처분 취소판결 선고를 받았다.

본 단 世譜編纂사업 추진에 대하여

회장[大韓가스器機工業(주) 사장]이 500만원을 선뜻 내놓아 종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앞으로 대종회에서는 편찬위원회 중심으로 능력있는 종인은 물론, 모두가 기금 확보에 앞장 서 줄 것을 권유하여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개년간의 장기간의 편찬사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언제나 합리적이고도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수단에 있어서도 수단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고 지역위원들로 하여금 우봉 이씨라 하면 한 사람 빠짐없이 등재되도록 활동해 줄 것을 당부

문제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글전용문체와 상통되는 문교행정의 정체과제로 남겨 두고서라도 우선 부모를 중심으로 한 상하 일가 함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권고를 일가에게 하고 싶다.

최근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이름 표기의 한글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자까지 포함하여 게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전통문화 내지는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같은 음으로 불리지는 문중의 구분을 위해서는 한문학을 도의시 하고서는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70% 이상

1999년도 대종회 임원명단

고 문 壬九 俊九 丙鶴 璠寧 世茂
회 장 丙禧
부 회 장 喆九 丙七 丙吉 丙德 萬寧 舜寧 淸寧 秉茂 永範
감 사 丙珣 臣茂
도 유 사 茂學
장재유사 茂錫
유 사 丙秀 喆衡 龍茂
중무위원 萬用 雲九 學九 勳九 丙朝 丙泰 丙天 丙國 丙鎬 丙應 丙龍 昇寧 健寧 甲寧 泰寧 吉雄 泰寧 根寧 根衡 世寧 宇寧 基茂 茂卓 昌茂 茂役 用茂 範瑞 範泰
지역위원
인천 김포 丙濬 (☎ 0341-184-0777, [사무실])

0341-185-6061)
김포 강화 茂潤 (☎ 0341-987-3545)
양평 광주 丙元 (☎ 0338-773-0653) 용인 일원
용인 일원 敏寧 (☎ 0335-335-2714)
용인 일원 丙默 (☎ 0331-282-2800, 0335-335-3601)
수원 화성 茂貞 (☎ 0331-291-2081)
이천 진천 勝範 (☎ 0446-877-1060)
가평 춘천 周衡 (☎ 0356-584-7188)
가평 철원 茂榮 (☎ 0356-584-7080)
원주 횡성 丙洙 (☎ 0372-343-2107)
평창 제천 丙珉 (☎ 0374-332-2800, [사무실] 0374-332-2407)
예산 일원 茂魯 (☎ 0458-337-6648)
서산 일원 俊寧 (☎ 0455-662-1985)

천안 일원 光茂 (☎ 0417-564-4033)
대전 옥천 建茂 (☎ 0475-732-2886)
연기 금산 功茂 (☎ 0415-863-2858)
청주 청원 承寧 (☎ 0431-272-3828, 019-412-3828)
아산 온양 元寧 (☎ 0418-543-0526)
아산 온양 仲茂 (☎ 0418-542-3230)
보령 서천 寧 (☎ 0452-933-4433)
충주 음성 勝範 (☎ 0446-877-1060)
경주 안강 成冠 (☎ 0561-761-2865)
대구 달성 範周 (☎ 053-323-6520)
의성 일원 茂軾 (☎ 0576-862-0104)
문경 점촌 昌茂 (☎ 0581-555-2268)
문경 가은 相寧 (☎ 0581-571-8608)

선조 유적 순례 행사 성황리 개최

조상의 뉘 되새기며 즐거운 한 때 보내

지난 5월 16일 청장년회(회장:昌茂)의 재발족 후 선조 유적순례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지방에 있는 穎樂亭(영락정)을 비롯한 瑞峯(서봉·李東寧 1905~1992)공 묘소 및 鶴泉亭(학천정) 선조 유적순례 행사가 병주 회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례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7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아시아 시멘트(주) 본사에서 출발한 일행은 먼저 문경시 점촌읍에 있는 문창고등학교를 방문, 서봉 묘소를 참배하

산(상산)김씨의 齋室(제실)로 연산군(연산군~중종초기)대에 문경시 가은면 성유리에 지은 초가 정자였다.

퇴음공은 청백리(淳兵曹判書)공의 4대손으로 조부는 사헌부 장령(緝·成宗 乙未文科·司憲府·掌令·贈 執義), 부친은 참봉(世鈞 남부참봉)이었는데 당시의 당쟁으로 인하여 봉당되는가 하면 조정의 기강마저 흔들려 명관 현신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낙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 退陰(퇴음·13세·琦·참봉)공 집안도 은거처를

문경과 인연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30여 년이 된다.

문경군지(聞慶郡誌)에서 영락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상략) 참봉 벼슬을 한 李琦(이기)가 서울로부터 가은읍 성유리로 이사 와서 푸른 산기슭에다 초가정자를 지었는데 퇴락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자손들이 옛 터전을 다시 닦고서 정자를 지어 선조를 추모하는 장소로 삼고 있다...(하략)』

영락정의 이름은 가은면 서쪽에 흐르는 穎江(영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逸休亭(일휴정 1626~1688·肅宗朝·領議政)공이 영남 按察使(안찰사)로 게실 때 방문한 적이 있으며, 陶菴(도암·絳 1680~1746·大提學·朝鮮後期 性理學의 大家 陶菴集 등 著書 多數)공이 鶴泉亭(학천정)에서 강학(講學)하실 때 유숙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약 150년간 폐허가 되어 잠초만 우거진 채 있었던 것을 중친 寅九(인구·1852~?) 退陰공의 11대손공이 중심이 되어 1902년에 문중회의에서 穎樂亭을 세우자는 의견을 모아 이에 소요되는 예산 각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07년 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이해 가을에 낙성되어 穎樂亭의 편액을 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萬寧 부회장 2천 만원 찬조

세보편찬 비용으로 기탁
평소 사회복지에도 적극적으로 활동



萬寧 부회장

언제나 대중회와 일가들의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적극성을 보여 왔던 萬寧(만녕 (주)光一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7월 2일 세보편찬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세보편찬을 위한 찬조금으로 2천 만원을 회사해 일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성서 구절 그대로 진실과 성실을 생활 철학으로 실천하고 있는 萬寧 부회장은 문중 일뿐만 아니라 熙寧장학회 운영, 사회복지법인 자선사업재단 이사장(현 명예이사장), 한국 기독교법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사회참여 활동에도 기독교 장로교 장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 왔었다. 萬寧 부회장의 이러한 활동은 정부에서도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 받은 바 있으며, 특히 1985년에는 미국 오크라호마 주지사로부터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자랑스러운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대중회가 세보편찬을 위해 편찬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만녕 부회장을 제2분과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취임한 바 있다.

鶴泉亭(학천정)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선유동에 1738년에 知菴(지암·維 1704~1738·儒學者·贈 持平 晚悔堂 曾孫 道암공의 從弟)공께서 세운 정자로 초기에는 屯山精舍(屯山精舍)라 하여 유생과 시인 묵객들이 찾아들어 강론을 나누던 곳이다. 도암 선조께서도 두 번이나 방문하던 정자를 마련하였다. 지암이 타계하기 전 만났을 때 “학천을 얻는다면 곧 죽어도 좋다. 나는 죽는다해도 학천만은 버릴 수 없다.”는 지암의 말을 도암집에 남기고 있을 정도로 수도(修道)하기에 좋고 풍치 수려한 곳이다.

그후 소실되어 폐허화된 것을 다시 1901년 直養齋(직양재·萬用·1893~1915 直養文集刊)공과 寅九공이 참판공 문중과 유림 및 군수(李宰夏), 성주부사(鎬奭) 등이 찬조하는 등 기금을 마련하여 위치도 너무 깊다하여 지금의 학대(鶴臺) 밑으로 옮겨 학천정을 재건하고 도암 선생의 영전을 모시는 한편, 淵齋(연재 宋秉瑞 尤庵의 9세손)공의 講學(강학) 자리를 마련한 것이 오늘까지 내려

와 우봉 이씨의 자랑스러운 유적으로 남게 되었다.

瑞峯(서봉)공 묘소 ‘我門中至 孝達德者 其惟東寧君乎’ 우리 문중에 효도가 지극하고 덕에 통달한 사람은 오직 동녕뿐’이라고 극찬한 이 글은 당대의 서예가요 한학자로 알려졌던 丙熙(병희·斗溪 仲兒)공이 瑞峯의 아호를 지어준 액자 내용의 글이다. 서봉공은 집안에서는 효자로 사회에서는 신용, 인화, 겸손, 인자로 봉명 그룹을 이끌어 키웠으며 모인재 재화는 육영(育英)사업으로 영남학원과 성균관대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재양성에 환원하였다. 또한 3선의 국회의원 때는 중용(中庸)의 대도(大道)로 모범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추앙된 분이다. 대중보 창간 때 축사에서 서봉은 『시작하면 끝을 맺으라』는 공의 평소의식을 우리에게 남겨 주어 대중보의 편집방침이 되었다. 공은 86세를 일기로 타계하니 후손들은 문경 시내 문창고등학교 뒤쪽 경내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그후 유택은 서봉공을 흠모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우봉인의 유적지가 되었다.(庚學 道유사 제공)



▲ 서봉(東寧) 묘소를 참배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고 선조의 뉘이 깃든 참판공 문중 퇴음공이 인연한 모정산(茅亭山)에 있는 영락정과 가은읍 선유동에 있는 학천정을 둘러보고 오후 9시경 서울에 도착하였다.(庚相 청장년회 총무 제공)

그런데 일가들이 방문했던 학천정과 영락정의 유래 및 서봉공의 업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개봉동에서 상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낙향이 참판공 문중 자손들의 최초 경상도 진출이 된다. 이 무렵 대사간 문중의 翰林(塘·戊子別試 文科·翰林)공도 강원도 횡성으로 은거(隱居)한 시기였다.

퇴음공은 상주에서 孝騫(효견)과 孝參(효삼)등 두 아드님을 두었는데 효견공은 상주에서 의성 안계로, 효삼공은 문경 마성으로 가서 각각 자리를 잡았다. 이 때가 1560년 경이 되니

穎樂亭(영락정)은 退陰(퇴음·琦·參奉 1540년대)공의 配位(배위)인 商

유적순례행사에 참가한 일가와 참석자

秉茂(부회장 아세아 시멘트(주) 회장) 500,000원, 永範(부회장 변호사) 300,000원, 萬寧(부회장 (주)광일) 200,000원, 兩德(부회장 대한도시가스(주)대표) 100,000원, 臣茂(청장년회 고문) 100,000원, 丙秀(청장년회 감사) 100,000원, 芳茂(청장년회 국민은행 지점장) 100,000원, 德寧(청장년회 신길동) 100,000원, 祐寧(청장년회 경찰청) 100,000원, 石寧(청장년회 원미식품) 100,000원, 兩珉(청장년회 평창터미널 대표) 100,000원, 範俊(청장년회 청송운수) 기념타올 50매, 東寧(문경시 가은읍 회수회

총무) 감식초 50명, 根寧(총무위원), 昌茂(청장년회장), 在茂(청장년회 재무간사), 龍茂(대중회 유사), 武寧(한국방충공사 제작차장), 先寧(청장년회)부부, 普寧(청장년회), 범훈(아세아 제지), 茂春(청장년회), 범택(청장년회 운영위원), 丙世(청장년회), 丙秀(청장년회), 壽寧(청장년회), 범찬(국정원 외3명), 舜寧(대중회 부회장), 길녕(청주), 承寧(청주), 병하, 丙世(청장년회 외2명), 用茂(파주문중), 丙南(청장년회 부회장), 丙墨(인천 외2명), 병영(강동구), 萬寧(청장년회), 신재분, 詰衡(대중회 유사)

文武의 傳統을 이은 德隱公 子孫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월금산(일명 麗金山)을 중심으로 한 石院洞(석원동)에는 우봉 이씨(牛峯李氏:우봉은 황해도 金川郡의 옛 이름) 의렬공(義烈公:子晟)과 감찰공(監察公:圻) 두 문중의 분기점을 이루는 돌안(石院洞)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한강 하류에 있는 강화도와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격전지였던 문수산 아래, 연안과 개풍군을 잇는 조강포(祖江浦)를 이웃한 마을로 천수답 산골마을의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한강변을 끼고 있어 앞이 훤히 트인 동리이다.

돌안에서 4km쯤 가면 월곶면 사무소가 있다. 조선 조 때 통진군(通津郡)으로 부사(府使)가 있던 곳으로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郡下里)이다. 돌안은 휴전선 완충지대의 인접마을로서 지금은 넓게 닦아진 군용도로와 전기가 들어 왔지만 6·25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낙후된 벽촌마을이었다.

개경·한성 수도 따라 자리 잡은 의렬공 문중

의렬공 문중은 우봉 이씨 시조 공정(公靖:1147~1210 門下待中)공의 둘째 아들인 자성공의 시호로서 그 자손 쪽 집안을 가리켜 부쳐진 편의상의 구분이며, 감찰공 문중은 9세 사헌부 감찰의 벼슬을 한 기(圻)공의 자손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돌안 마을이 우봉 이씨의 집산촌으로 형성된 시기는 의렬공 문중으로 이미 1460년대부터 찾는다. 즉 의렬공 덕유공의 고조인 7세 선(善·禮義尙書)공의 묘소기록이 개풍군 풍덕리 장산 아래라는 기록과 11세 찬(讚·己亥文科 1453년·工曹參議)공의 묘소가 그 부친인 덕유(德裕·監役 단종1년·1479)공 선영 아래쪽인 김포 통진 가좌동 함박산에 모신 것과 그의 아들 지황(之風·1514년·通德郎)공이 여금산(麗金山) 오른쪽 기슭에 모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려 때 개경(개성)에서 세종초기에 개풍군에서 한강하류를 건너 고양

군 화전과 김포군 월곶면 돌안 마을로 자리를 잡고 집성촌을 형성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찰공 문중 만필(晩弼·일명 堯弼·덕은공의 장남) 계대를 이은 17세 방(紡·1655~1744·생부 廷弼·折衝將軍의 6남 1녀 중 2남) 묘소는 여금산 남서쪽 아래, 즉 돌안 마을 뒤쪽 향나무 밑에 있으며, 18세 제우(濟宇 1680~1743), 19세 빈(彬·1710~? 중 司僕寺正), 20세 광수(光秀·1725~? 중 經筵參贊), 21세 규(圭·1805~1868 중 호조참판)공의 묘소는 마을 앞 수정암(水晶岩) 아래 양지바른 언덕에 있다. 그리고 감찰공 문중을 후세에 와서 빛낸 관포재(鑄學·灌圃齋·1830~1904 五衛將 資憲大夫)공을 비롯한 호욱(鎬旭·1833~1903 兪知中樞府事 겸 五衛將), 의용(義用·1864~1905 庚寅文科·嘉義中樞府 議官)공의 묘소가 나란히 있어 해마다 시제 때가 되면 자손들이 모여 차례를 지낸다.

감찰공 문중은 태종11년(1411) 두봉(斗峯·吉培 海道 관찰사)공 세 아드님 중 장남인 기(圻·監察)의 문중을 부르는 말인데 차남 질(埴)은 대사간(大司諫), 3남 연(延)은 사직(司直), 4남 완(完)은 지평(持平)에 올라 3 형제분들 모두가 분파되어 각기 문중을 형성하였다.

학문에 기틀 쌓은

감찰공 문중 고양군 화전에서 용인 충청도 터 밭까지

감찰공은 승녕(承寧·暇湖堂·大司成)공과 승건(承健·觀察使·大提學)공을 두었다. 승녕공은 감찰공 중손으로, 자강(自強·承健)공은 심(諶·吏曹參判)과 순(詢·生員) 두 아들을 두었으며, 손주인 지문(之文·中樞 參奉)과 지행(之行·江原道監司), 지신(之信·眞菴·黃海道觀察使)을 급제시켜 벼슬을 하게되니 점차적으로 집안의 기틀이 세워졌다.

그리고 보진암공은 참봉(諫)공과 좌찬성(劾)공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참봉공의 아드님 유항(有恒·孝旌

闕)공은 임진왜란 때 양친이 화를 입게 되자 자신의 몸으로 창을 막아 적군마저 부모를 위한 행동에 감동하였으며 나라에서는 정려문을 세워 4대에까지 그 효열의 뜻을 지키도록 이름을 남겼으나 자손은 불사했다. 좌찬성공은 자손들에게 깊은 학문의 전통을 살려 용인과 충청도로 낙향하고 많은 자손들이 벼슬기에 올랐다. 사례편람을 지으신 성리학자 도암공은 4대손이 된다.

石院洞의 盛衰과 試鍊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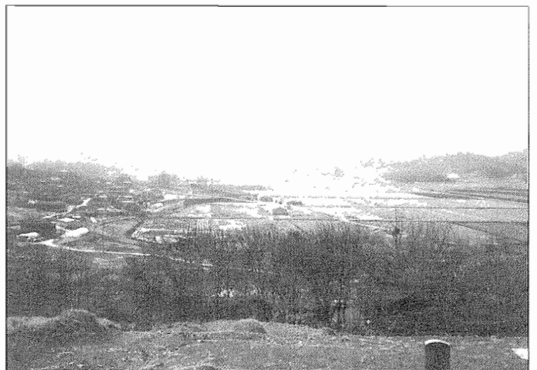
紡(방)공은 濟宇(제우)와 濟昌(제창)의 2남1녀가 있었다. 공의 형제 중 4남인 緝(증)이 자손이 없어 제창을 양자로 보내니 자신을 대신해서 의렬공 문중으로 되돌려 보낸 셈이다. 濟宇공은 彬(빈·贈 司僕寺 正)을, 彬공은 光秀(광수·贈 左承旨), 光漢(광한), 光俊(광준), 光鍊(광련) 등 4남을 두었다.

문을 일으킨 동기가 되었다.

즉 불란서 군함이 강화도 갑곶진을 거쳐 서울 양화진까지 침입하여 한강을 봉쇄할 때 이해 9월에 60여 명의 불란서 군이 다시 강화도를 점거하면서 통진 부까지 침투하여 공사전(公私錢) 300량과 소를 비롯 한 가족 및 의복 등을 강탈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이 난리를 막기 위해 관군과 의병이 향전하여



▲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속칭 돌안마을 입구에 세운 표지석



▲ 덕은공원을 조성할 석원동 마을 전경

좌승지(光秀)공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외아들인 圭(圭·贈 戶曹參判)는 鎬學(호학·灌圃齋·五衛將), 3녀를 두었다. 장손인 만필(晩弼·一名 堯弼)은 임란 와중에 자손이 끊어져 후에 의렬공 문중 절충장군(廷弼)의 차남(紡)을 사후 양자 하였다. 그후 감찰공 문중은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화전리를 중심으로 번창하다가 조선조 때와 왜정치하 당시인 1940년 경 토지수용령(1940)에 의하여 조상의 산소가 향동 2리와 용인시 이등면과 충남 전의 등지에 緋禮(면례)되었다.

덕은공 문중은 임란과 병인양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계가 끊어질 정도로 불우했으나 병인양요가 다시 가

문수산성에서 적 27명의 사상자를 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나 이들은 조강포와 강녕포에 함포격을 가하는 등 한 달동안이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灌圃齋공은 통진읍이 화염에 쌓여 관리와 읍민이 피신하고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향교에 모셔진 오성위패(五聖位牌)를 월금산 석실에 모시고 난이 평정되자 다시 통진향교에 안치시킨 공로로 3대조까지 推榮(추영)을 받았다.

또한 공은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선친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藥指(약지)를 찢아 피를 내어 위급

한 순간을 막았으며 어른이 돌아가자 초막을 지어 3년을 조석으로 배곡을 드리니 그 효심은 통진부사(李源祖)에게 전해져 효자상을 받는 등 집안 번성의 기틀을 쌓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 외중에서도 아들인 義用(의용·庚寅武科 嘉義中樞府·議官·생부 鎬烈)과 4형제와 더불어 晝樵夜讀(주추야독) 글에 진연하여 成用(성용·丙戌武科), 基用(기용·壬辰武科), 在用(재용·庚寅武科), 晉九(진구·丙戌武科) 등을 무과에 합격시키는 열성을 보였다. 그후 구한말 비운의 마지막 소용들이 속에서 개화기로 전환되는 새로운 변혁을 맞는다.

근대와 현대사 속의 비극 속출

그것은 보수적 환경에서 고향을 떠나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하였다. 일본과 만주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구(九)자 병(丙)자 항렬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풍운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일합방 이후 구(九)자 항렬에서 신학문을 배운 후 개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로 나오면서 기반을 잡고 자녀교육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나 정부수립을 전 후하여 정치적 좌우사상에 휘말리고, 다시 6·25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6·25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비극의 집안이기도

德隱公園의 未來像

석원동에는 300여 년 동안 선대가 살다 가신 묘소가 있는 곳이며 또 가능한 한 오늘의 후손들이 묻혀야 할 곳이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흙 한줌에는 조상들의 넋이 담겨져 있으며 정신적 지주를 이룩한 역사가 있다.

시련이 많았고 나갈 길이 험겨웠던 강화도를 방패삼아 자리한 외침의 풍진이 깔린 본진 월곶, 그리고 넓게 열린 개곡리강 건너 시조의 묘소가 지척에 있는 우리의 상징이 서 있는 풍경을 그려봐도 가슴이 뿌듯해진다. 그러나 공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자손들의 힘이 요구된다.

풀 한 포기 흙 한 줌을 내 손으로 뜯어내고 퍼내는 정신으로 차근차근하게 내 동산을 내 집안의 뜻을 가꾸자는 뜻을 후손들에게 알려 덕은공의 전통을 잊고 싶다. 오랜 세월 속에서 조상이 잠든 내 땅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그림다고만 말고 내 손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다.

아름다운 꿈을 이룩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조상들도 기뻐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쁘고 또 내일의 후손들도 기뻐할 이 꿈이 이루어질 때 덕은공 자손들의 마음도, 이곳 풍경도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김포·강화문중 (희장·丙濬) 재공)

문·중·연·구

義烈公 門中 系代에 대하여

1927년 및 1975년판 세보를 통하여 보면 의렬(子晟 平章事)공 자손은 承宗(승종·3世·正義大夫·左右衛上將軍) - (啓·4世·奉翊大夫·版圖判書·上護軍) - 應時(응시·5世·中顯大夫 檢校軍器監) - 養直(양직·6世·문과 성균관 直講)과 允暉(윤휘·6世·典理提調) - 養直공은 輝生(휘생·7世·工曹參議) - 坡(파·8世·副司直), 欣(흔·8世·中正大夫 三司左伊)공을 그리고 欣공은 天德(천덕 9世 正義大夫 慕 沃川郡 伊院面)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900년도에 발행된 우봉 이씨 별보(덕은공 문중별보 필체본 鎬學 발간)를 보면 의렬공 계대는 嗣宗(사종·3世·門下侍中), 4세에서 薰(훈 朝散大夫)공과 壽聃(수담·奉直大夫)를, 5세에서는 得謙(득겸·典理提調)과 得遜(득순·奉翊大夫)이, 그리고 善(선·6世·禮儀尙書 묘 풍덕)과 喜(희)공을, 弘年(홍년·7世·參議), (인·承議郎), 承裕(승유·監役·묘 동진 가좌동), 讚(찬·11世·成宗 己亥 文科), 之風(지황·12世·묘 동진 북면 여금산 左麓), 胤(윤·13世·通德郎·묘 동진 북면 麗金山·甲坐)공으로 계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의렬공 2대가 承宗공만 등계되어 있으나 別譜(1900년 판)에서는 嗣宗공이 2대로 밝혀지고 있다. 2대를 예측해볼 때에 承宗공 자손은 9세(天德)부터 증부 옥천군 이원면으로, 承裕(9세)공 자손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통진)의 기록에서 각각 직계 家乘(가승)만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의 구분에서 볼 때 형제분으로 사종공 계대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양직(자 敬父·6세 손)공에 대한 자료인 稼亭集(가정집 李穀 1298~1351·牧隱·李穡의 父) 권1 義財記(의재기)에서 찾을 수 있다.

牛峯李敬父問於余曰 朋友與兄弟孰親 曰兄弟然則世之人 皆急於朋友 而緩於兄弟何也 曰此從欲之害 而好利之弊也(중략) 李君嘆曰 然吾有親兄弟遠兄弟二十餘人而與之 游切切焉怡怡焉而又 金各出錢若干命之曰義財 歲更二人而送主之 月取其息以備慶弔迎餞之用(중략) 苟有 餘將以爲 救恤之資殺子孫守之(하략)

즉 우봉 이경부가 친구와 형제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를 물었을 때 형제가 더 친하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사람들이 친구에게는 급하게 굴면서 형제 간에는 어찌 그렇지 못하나 하기에 그것은 욕심일 따름이고 이익을 취하려는 폐단에서 그렇다고 했다.(중략) 이 군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친형제와 먼촌 형제가 20여 명이 있는데 친하기 이를 데 없고 화기가 넘칠 정도이다. 그래서 2년마다 두 사람씩 교대로 이를 운영하여 다달이 약간의 남는 비용을 때 어 경조 때나 손님 영접이나 전별하는 일에 쓰인다. 좀더 여유가 생기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자산으로 삼도록 하고 자손들에게도 이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 내용에서 養直공이 언급한 친형제와 먼촌 형제 20여 명이나 있다는 내용에 주목이 간다. 이 자료와 함께 두 세보를 검토해 볼 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자나 諱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으나 김포문중의 별보에 기록된 諱 嗣宗공은 承宗공과는 다른 의문점이 있었다. 따라서 제 각기 직계선대의 기록만을 기록한데서 온 착오임을 義財記 내용에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의렬공 계대에 대한 옥천 문중과 김포 문중은 의견을 교환 후 世譜編纂時 반영하여 계대를 바르게 잡도록 제의한다.

(세보편찬위원회)

국역 사례편람

陶庵 李穡 編

값 20,000

오고 있는 살아있는 의례에 관한 책
이백팔십여년의 전통 그대로 지켜
도암선조가 재편찬한 『四禮便覽』은
朱子家禮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근간 출판

陶庵의 三官記

李丙疇 撰

옛한글로 쓴 당시의 사회상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한 수상록

牛峯李門 追遠錄

전안내역에 열 수 있는 유일한 기록

서울 중구 무교동 우봉 이씨 대종회
장재유사 **李茂錫**

주문청약서

(02) 7531-6340
FAX (02) 7531-6342

牛峯李氏家訓을 알아

忠厚謹愼

성실하고 인자하고 언행과 행동을 조심하라

芝 村

옛날 같으면 가훈을 만드는 일은 적어도 학문이 높고 경륜을 쌓은 집안의 어른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풍을 참작하여 가법으로 삼아 지키도록 했다. 우리 집안의 가훈은 이와 같이 이미 조선조부터 가풍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봉 이씨의 가훈은 사계에서 인정되어 본보기가 되고 있다.

17세 도암(陶庵·竊 1680~1746·大提學·朝鮮後期·性理學의·大家·陶菴集 등 著書多數) 공께서 쓰신 逸休亭(일휴정) 행장에서 우리 문중의 가훈은 忠厚謹愼(충후근신)이라 밝히고 있다. 忠厚謹愼은 성실하고, 인자하고, 언행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휴정 선조는 가법 그대로 행동하신 명신으로도 암선조는 우리 집안의 가훈 그대로 행동하신 일휴정공에 대하여 이렇게 설

명하고 있다. 즉 부군께서는 자제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忠厚謹愼이 가법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은 직위가 높아도 겸손하였다. 그리고 풍족하게 녹을 받았어도 사치하지 않았으며 벼슬을 떠나 농사를 지을 때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이름이 알려 질까 두려워 조심하였다. 남과 사귀는 속일 줄 모르고 정성껏 진실하게 대하였다. 또 친척 중 서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타일러 감화시켰다. 부군은 작은 벼슬을 할 때부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나 원통하게 누명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허물을 벗겨 구해주고 굶주린 사람을 구하니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또한 곤궁 초목일지라도 함부로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섭리에 따랐다. 그러나 옳고 그릇된 일에 대해서는 구별이 엄

격하여 강한 자라도 공의 고집을 꺾지 못하였다. 그리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밥 한 술 뜨는 사이에도 잊지 않고 늘 나라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解註: 일휴정(逸休亭 1629~1688 자 仲羽)공은 집의 경상도 판관 대사간 이조판서 영의정을 지냈으며 오늘날까지 대구 상덕사에서 배향하고 있는 현판 명신이었다.) 이와 같이 우봉 李門(이문)의 가훈은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휴정 공의 행장에서 찾을 수 있는 당시의 士大夫(사대부) 집안의 법도나 오늘날의 중산층 이상의 수준에서 理想(이상)으로 생각하는 미풍양속 그대로의 아름답고 겸손한 풍속을 찾을 수 있다는데서 예나 지금이나 생활의 법도는 같다는데 공통점을 찾는다. 그런데 우봉 이씨 일가

들이 이러한 가훈과 내력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염려된다. 앞서 예를 들어 본 것 같이 우리 집안의 머느리들이 과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훈을 잊고 진실하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는 식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알려주는 일가는 없을까 또 지체 있는 집안으로나 조상에 게 목되게 하는 일을 없을까. 우리 집안의 가훈인 忠厚謹愼(충후근신) 속에는 진실하게 사는 뜻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도 있으며 이웃에게 폐가 되는 경박한 행동이나 언행을 삼가 한다는 집안의 생활철학과 지혜가 깃들여 있다. 집안의 내력을 알아본다는 것은 조상들이 남겨 놓은 좋은 일은 그대로 따르고 그릇된 일은 다시 밟지 말아야 하는 교훈적 가치를 음미해 본다는 것은 가훈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천군 백빈우면(白蘋右面)
• 참판공 문중: 경기도 시흥군 개봉리(현 서울특별시 개봉동 산1)

그러나 대체로 11세에 들어와서 지역분포 폭은 넓어져서 황해도 금천, 배천, 경기도 장단, 풍덕, 연백, 부천, 시흥, 김포, 강화, 양주, 파주, 연천, 고양,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수원, 부평, 가평, 포천, 강원도에는 춘천, 횡성, 원주, 이천, 홍천, 충청도에는 제천, 대전, 중원, 부여, 괴산, 천안, 보령, 논산, 음성, 아산, 옥천, 연기, 대덕, 전의, 진천, 공주, 온양, 청원, 경상도는 문경, 영천, 경주, 선산, 의성, 군위, 예천, 금성, 상주, 봉화, 전라도에는 전주, 익산, 장흥 등지에 흩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대중회 철형(詰衡) 유사가 조사한 오늘날까지 집성촌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18개 지역으로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김포시(강화군포함) 월곡면 개곡리 석원동
-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 용인시 이동면, 금양장리
- 양평군 양동면
- 파주시 교하면 동배리, 문산시 연천군 백학면,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 음성군 감곡면, 대소면, 금양면 형제리,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 예산군 봉산면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
- 연기군 전의면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계리, 구천면 미천리
- 문경시 가은읍, 점촌동, 농암면
-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세보등재 신청시 참고자료로 우봉이씨 분파도를 후의로 발행하였습니다.

고침
14·15호(합병호) 1번:발전기금 보내준 일가들 중 청녕, 총범 500,000원을 5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문중연구

시작되는 조상의 기록과 집성촌을 찾아서

시조 文景公(公靖)과 義烈公(子晟)
우봉 이씨는 고려사를 통해 보면 시조 문경공(文景公 公靖 1147~1212)은 852년 전고려 인종 때 우봉현 도리촌(桃李村)에서 낚아 수상(문하시중)에까지 올랐으며, 차남 자성 장군의 공훈으로 금자광록대부 벽상 삼한삼증공신으로 잠성(峇城) 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이 때에 우봉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시조공의 슬하에는 자평(子平·執憲)과 자의(子儀·平章事) 그리고 자성(自晟 門下侍郎 平章事 義烈公) 등 세분을 두셨다. 특히 의렬공은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성품이 굳건하고 시화와 활쏘기에 뛰어난 장군으로 몽고군이 개경으로 쳐들어오자 출전하여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통의 반란과 충주

의 우본의 난, 용문창의 난 및 동경(慶州)에서 난을 일으킨 최산, 이유 등을 영천에서 무찌른 개선장군이였다. 이 공으로 금자광록대부에 오르고 義烈(의렬)의 시호를 받았으며, 부친 문경공에게는 삼주백(首知衣·峇城·牛峯)의 증직을 받았다.
시조공의 무덤은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 백사읍면 관음계 경동에 모셨다가 고종 24년(1237년) 봄에 도리촌(桃李村)에 모셔졌으나 다시 다음 해인 무술년 3월에 토산 부봉동(瓦山 釜峰洞)에 모신 것을 그 후 실전되어 찾지 못하였는데 1925년 4월 그 근처인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유덕리 마담동(馬踏洞)에서 토기 도굴꾼이 지석(誌石)을 발견하게 되어 문중에서 확인 후 이 해 9월 경종종 약장(京宗中宗 約

長)인 일당(一堂·完用)의 주선으로 그 자리를 새로 단장하고 비석을 세웠다.
시조 문경공과 그 둘째 아드님인 의렬공은 고려 중엽 40여 년간의 몽고의 침입과 민란이 키운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봉 이씨는 850여 년간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듯이 혈연의 체계를 이룩할 수 있던 가문으로 순수하게 이어온 우리 나라의 대표적 전통을 이은 집안이라 할 수 있다.
문중(派) 형성과 생활 지역
부사공(副使公:根專), 참판공(參判公:根繼) 우리 문중은 대체로 중성군(鍾城君:雲露), 원외랑공(員外郎公:英年), 감찰공(監察公:坻), 대사간공(大司諫公:埏), 사직공(司直公:垓), 지평공(持平公:垓), 의렬공(義烈公:子晟) 문중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중별로 묘소를 중심으로 지역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의렬공 문중: 황해도 금천군 도리촌 관음계
• 중성군 문중: 경기도 파주시 수궁동
• 원외랑공 문중: 경기도 양주시 해동면(11세 仁恭~)
• 감찰공 문중: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향동
• 대사간공 문중: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길리(현 천호동)
* 후에 강원도 횡성군 목계리로 천래
• 사직공 문중: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길리(현 천호동)
* 후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로 이장)
• 지평공 문중: 전남 장흥군(현 고흥군 과역면) 흥양면
• 부사공 문중: 황해도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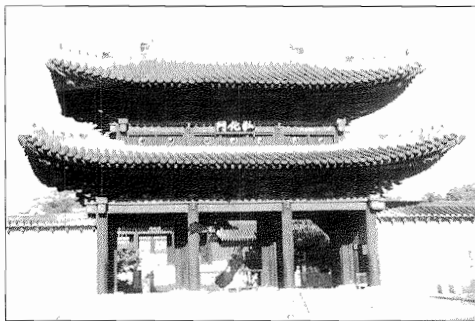
小華선생 묘소 정성드려 遷葬(천장)

6대손 元寧 健寧씨 주선으로

용인시 운학리 목동에 장례했던 小華(소화 光文 이조판서 謚 文簡)공의 묘소가 용인시 도시확장으로 산지가 개발되면서 부득이 1998년 4월 8일 총 소용경비 800만원을 드려 엄정면 죽동으로 緡禮(면례) 하고 비석도 石田(석전 丙疇 회장) 박사가 글을 짓고 牛崗(우강

丙天 종무위원)이 글을 쓴 비석을 새로 마련하여 새로 단장하였다. 그런데 小華(1778~1838) 선생은 知經筵春秋館事(지경연춘추관사), 弘文館 副提學(홍문관 부제학)을 비롯하여 世子右賓客(세자우빈객), 奎章閣直閣(규장각 직각)과 외직으로 춘천부사, 화성 유수, 전라감사 등을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후에 좌찬성의 증직을 받은 분으로 도암공의 증손이시며, 華泉(화천 采 호조 참판 증 좌찬부성)공의 아드님 이시다.

(건녕 종무위원 제공)



▲ 지한공이 쓰신 장경궁의 정문인 흥화문 현판

壽谷(之翰)공이 쓰신 弘化門의 懸板文

우봉 이씨 집안의 선조들 가운데 학문이 깊은 석학들이 많았다. 이 중 義烈(의열 子晟 평장사)은 고려사 열전에 기록에서 문무를 겸해 射藝(사예)와 書畫(서화)에 뛰어났다 했으며, 一堂(일당·完用·내각총리 대신)은 당대의 명필로서 독립문헌판(1896)을 비롯해서 덕수궁의 함원전 현판, 기타 국보급의 명승고적과 사찰의 대웅전 및 천왕문 현판 등을 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弘化門(흥화문)은 昌慶宮(창경궁)의 동쪽에 위치한 정문인 弘化門(흥화문) 현판은 원의랑문중 壽谷(수곡·之翰·16세 1604~1652·1사자관)공이 썼다. 창경궁은 조선 성종 14년(1483)에 세조비인 貞熹王后(정희왕후 尹氏), 昭惠王后(소혜왕후 덕종비 韓氏), 安順王后(안순왕후 예중계비 韓氏) 등 세 왕비를 위해 건축된 것으로 당초 편액문은 成任(성임·1421~1484 호 逸齋, 安齋·세종 20년 司馬試 3조참판·명필)이 썼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광해군 8년(1616)에 다시 짓고 흥화문 편액은 당시 사자관이었던 우봉이문 원의랑 문중의 之翰(지한·16세·1604~1652·寫字官)공께서 쓴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즉 원의랑공 문중 세보들

통해보면 다음과 같다. 甲辰二月三日生 參寧國原從功臣 乙亥增廣成均館生員 官上護軍寫字官善書有傳于書畫錄 有筆親書弘化門懸板 壬辰十月二十八日卒 有遺稿 또 이러한 사실은 감찰공 문중 근대의 명필이신 農峯(丙熙(병희)·1889~1966·李王職屬 曷典祀補·秘苑의 兩班家的 柱聯 친필 다수)공의 아드님이신 守寧(1925~ 서예가 斗溪(丙燾)博士 碑文謹書 현 세보 편찬위원)씨께서 입증해 주었다.



▲ 병희공이 쓰신 비원내 양방가에 주련(柱聯) 친필 중 한 작품

대중회 사무실에 세보 열람대 설치

그 동안 종친들의 繼代(계대) 등 문기가 잇따르고 부족한 참고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여 세보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감안하여 대중회에서는 사무실 개소와 함께 세보 열람대를 마련하고 관련도서도 구입하여 일가면 누구나 열람 연구하도록 세보 열람대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비치하였다.(무학 도유사 제공)

- 高麗史 전권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박시형 외 여강출판(1991.8.31)
- 국역 東國通典 전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6.10.30)
- 古文眞寶 전후편 金學主 국역 明文堂(1989.10.15)
- 국역 東國文獻 전12권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주) 민문고(1989.10.20)
- 신증 東國여지승람 16권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1996.8.1)
- 中國人名大辭典 上下卷 景仁文化社編(1989.12.15)
- 恩誦堂集 李尙迪 학국학 문헌연구소 편 서울 아세아 문화사(1973.3.25)
- 修正增補 韓國學 年表 金根洙 永信아카데미韓國學 研究所(1983.12.16)
- 騎驢隨筆 한국사료총서 제2 國史

- 編纂委員會 探究堂(97 13. 20)
 - 字類註釋 全卷 金一根 建國大學校出版部(1985. 2. 22)
 - 朝鮮開化史 全卷 民俗苑(1983. 6. 15)
 - 大東奇聞 東國戰亂史 姜敦錫編著 明文堂(1989. 7. 20)
 - 韓國史年表 李萬烈 역음 역민사(1991. 8. 31) 韓國姓氏大觀 創造社(1973. 8. 15)
 - 동양사사전 동양사상사편찬위원회 일월서각(1989. 8. 11)
 - 明文漢韓大字典 金赫濟 金成元 明文堂(1987. 3. 14)
 - 大漢和辭典 12권 諸稿撤次 大修館書店(昭和61年2月25日)
 - 打愚遺稿 李翔 保景文化社(1990. 1. 30)
 - 華泉集 乾 坤 李采 保景文化社(1991. 10. 31)
 - 牛峯李氏 門中要鑑 李丙疇 牛峯李氏 大宗會(1997. 7. 10)
 - 牛峯李氏世譜 乾 坤 李丙燾 光東文化社(1976. 11. 20)
 - 陶庵集 天 地 人 李緯 保景文化社(1989. 1. 30)
 - 四禮便覽 李緯 牛峯李氏 大宗會(1992. 10. 30)
 - 宗員名簿
- 각 종중과보 사본(대사간공, 참판공, 원의랑공, 우봉이씨사적, 덕온공원)

(문중 내력을 찾아서)

11회 서예대전에서 丙天 종무위원 특선

陶庵 시 迎菊盆으로 예서 부문에서



지난 3월 10일 제1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병천(종무위원 서예가)씨가 陶庵선생의 시 迎菊盆(영국분)으로 특선의 영광을 안았다.

병천씨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초대작가를 비롯해 서울 서예공모심사위원(초대작가)이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선된 도암선생 시 迎菊盆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松蕪寒聲時滿聽 荷塘敗葉不堪看 憐君自有黃中德 几案相將到夜闌 /슬바람 찬 소리 스며드는 소리 가득히 칠 때 / 연못에 시든 연잎은 차마 볼 수 없구나 / 중용의 덕이 어떻게 빛을 잃으니 임의 모습 가련하다 / 궤에서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어느새 밤이 지낸다.

■ 尙德書法會展에 작품 출품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尙德書法會展(상덕서법회전 회장:夏村柳寅植 서예가)에서 병천(종무위원)씨 2점을 출품했는데 특히 금본으로 쓴 10곡 병품인 華嚴經普賢行原品(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관람객들은 눈길을 끌여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尙德書法會展은 2년마다 회원으로 한정시켜 개최되는 관심있는 전시회이다.

